

## 제198회 중앙총회 임시회 인사말씀

의원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안한 모습의 스님들과 마주하니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느덧 제15대 총회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장스님을 비롯한 의원스님들 모두의 진력과 덕화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5대 중앙총회는 제33대와 제34대 집행부와 함께 하며 승가복지의 첫걸음을 내딛었고, 사찰토지처분금 사용을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균등의 참종권을 인정하고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한 것 역시 종단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시에 종단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결실들입니다. 더불어 사찰의 운영과 재정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법인법과 승적특별조치법 제정 등, 현안에 대응하는 실질적 입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고 종도들과 화합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때와 비교하더라도 개혁적 의지로 총회 운영에 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종도와 사회의 눈높이 또한 점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출가자의 감소와 교단 역량의 지역적 편중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10년 후의 미래를 더 알차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종도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일일 것입니다. 제34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종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미래 불사의 큰 동력으로 삼으며 중앙총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급격한 사회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승가공동체 고유의 대중 생활과 공의를 존중하는 정신이 옳곧게 전해지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부득이 개별적인 수행과 포교에 머무르고 있기도 합니다. 능동적인 종단관과 바른 수행관으로 종도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 신도들의 신행과 정진의 길을 바르게 안내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의 과정에서, 그리고 일터와 가족의 품에서 당당하게 불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종단이 도와야 합니다.

현재 종단은 사부대중 모두가 종단 일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비록, 지난 시기 우리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와 종교가 바라는 변화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때입니다. 종단 운영에 참여하는 종교의 수가 제한되다 보니 적극적 변화가 어렵습니다. 스님들도 총무원장 선출에 참여하는 수는 2.6%에 불과합니다. 참여의 문을 활짝 열고 대중공의제의 전통을 현재에 되살려 종문의 봄을 새롭게 맞이해야 합니다.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이렇듯 미래를 향한 변화 요구에 대한 부응이자 시대적 필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94년 종단개혁 당시의 설문 및 이후 조사에서도 ‘총무원장 직선제’로 대표되는 종교들의 참여 요구는 대개 70% 이상을 넘었습니다. 종교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중앙종회 의원스님들께서 더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지난 2012년 이후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운영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자는 의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중앙종회 내에서 지혜롭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 개혁이 종단 운영의 제도적 분산이었다면, 오늘의 화두는 사부대중의 다양한 참여와 기여입니다. 오로지 종단의 미래, 불교의 중흥만을 생각하며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한 생각 크게 일으켜 종단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법부장 임명 동의를 비롯한 각종 현안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도 바른 지혜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두고 가라는 말씀은 시대의 변화와 대중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관념이나 사상을 넘어서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두의 원력으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새 시대의 불교가 열려나가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6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